

오토론 금융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시행일자: 2021.05.18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함 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오토론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오토론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오토론"이라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자동차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 "대출금"이라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오토론 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 액의 총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오토론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매도인 ·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 물건가격, 대출금액
- 월 원리금의 금액 · 지급횟수 및 시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 대출금의 변제방법

제5조 (오토론의 신청 및 지급위탁 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오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구입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대출금의 원지사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 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 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오토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지연배상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한다
 - 대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율 + 3%
 - 대부 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3%를 적용한다.
가. 「상법」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 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 거치기간은 정상기간 약정이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지연배상률은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는 대출의 만기 연장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약정에 의한 이자 등의 유통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등 임의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10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채무자는 오토론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원금과 이자,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9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 ·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 거래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감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본 건 오토론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자동이체 약관

-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일임)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전자 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 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 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